

일본, 고농도 희토류 발견...

미나미토리시마 근해 매장 ... 중국산 농도의 10배 달해

일본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근해 해저에 고농도 희토류(Rare Earth)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매체들이 3월21일 보도했다.

도쿄대학 연구팀은 1월 미나미토리시마 근해 수심 5600-5800미터의 해저에서 퇴적물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최고 농도 6500ppm의 희토류가 포함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해당농도는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희토류 광산에서 채취되는 희토류 500-1000ppm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주로 TV 등의 형광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연마재, 유리·렌즈 착색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희토류는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일본은 2010년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와중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타격을 입은 이후 수입원 다변화 및 자국기업을 통한 생산을 도모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22>